



[산업] 영화·드라마·게임 무한확장 '황금알 낳는 웹툰IP' 06



Life

[바이오] 유한양행 글로벌 전략 기술·인재·유럽 '3중 포석' L2



3200만명 대이동... 24일 오전, 25일 오후 가장 혼잡

<귀성>

<귀경>

고향가는길

23~27일 특별교통 대책기간 하루 평균 656만명 이동 예상 24일 9시, 25일 14시 가장 막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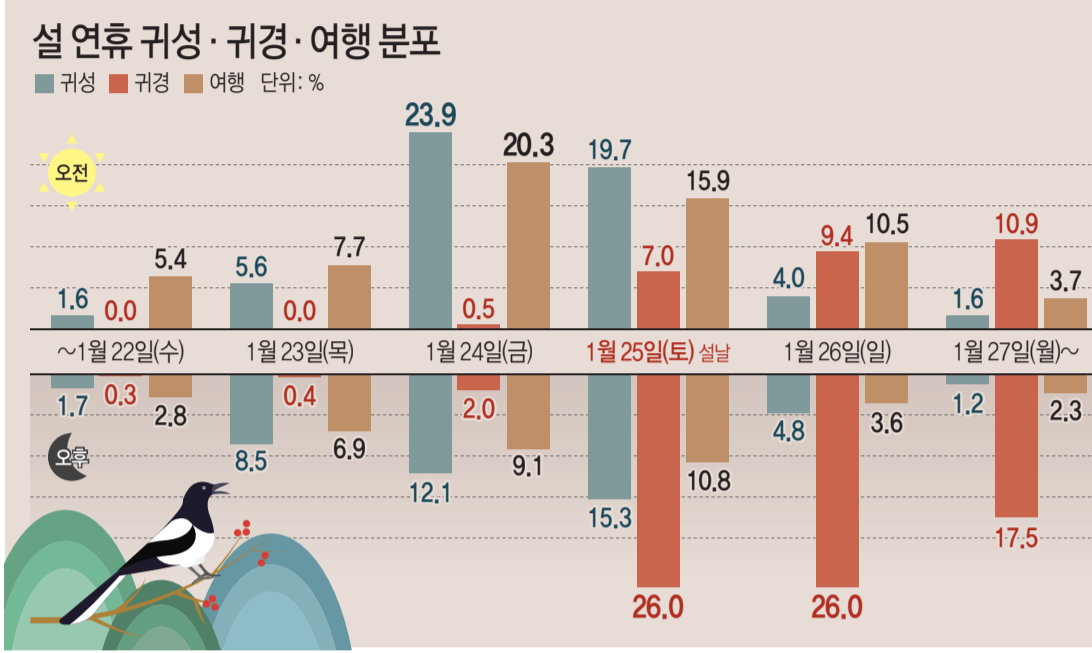
설 연휴 '민족대이동'이 시작됐다.

22일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중 320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혼잡시간대는 설 전날인 24일 오전과 25일 오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서울~부산, 부산~서울은 8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279만명, 하루 평균 65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72만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전날인 24일 오전, 귀경은 설날인 25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설은 귀성



주요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열차 33회, 연안여객선 104회를 추가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대하고, 원활한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일반화물보다 성수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했다.

이번 설에도 지난해 설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24일 00시부터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

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기간 중 예상 이동 인원은 총 3279만명이고 설날인 25일에 최대 인원인 82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평균 이동 인원은 지난해(623만명)보다 5.3% 증가한 656만명으로, 이는 평시(326만명)보다 2배 이상의 규모이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8.0%로 가장 많고, 버스 7.4%, 철

도 3.6%, 항공기 0.6%, 여객선 0.4%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이 집중되는 설 전날인 24일 오전 시간대(09시~10시)와 귀성객과 여행객, 귀경객이 동시에 몰리는 설날인 25일 오후 시간대(14시~15시)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20분, 서울~부산 8시간 10분, 서울~광주 6시간 50분, 서울~목포 7시간 10분, 서울~강릉 4시간 20분이 소요되고,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10분, 부산~서울 8

시간, 광주~서울 6시간 30분, 목포~서울 7시간, 강릉~서울이 3시간 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설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면 좋겠다"면서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결빙구간 등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므로 안전운전 등 교통질서를 꼭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우 기자 ywi964@metroseoul.co.kr

귀성길 지루할땐 모바일 게임 '한 판'

설 연휴 게임업계 이벤트 '풍성' 세뱃돈·복주머니 등 보상 지급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가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가족·친지들과 모이는 시간은 즐겁지만, 전국 고속도로는 고향으로 떠난 귀성객들의 행렬로 정체에 예상된다. 오랜 시간 지루한 고속도로에 머물러야 하는 귀성객들을 위해 즐길 만한 모바일 게임을 소개해 본다.

2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사들은 대목인 설 연휴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넥슨은 설날을 맞아 자사 모바일 게임 8종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운영한다. 'V4'에서는 지난 21일부터 '황금빛 설날 이벤트'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세뱃돈을 찾아 V4 게임 재화인 골드와 교환할 수 있다. '메이플스토리M'에서는 31일까지 '설날 출석' 이벤트를 통해 원정대 콘텐츠 보상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는 '보스 전리품 선택 상자' 등 매일 접속 보상을 지급한다. '트라하' 게임에는 27일까지 접속만



해도 새해 선물상자를 지급한다. 이밖에도 '엑스'에서는 내달 5일까지 일일 이벤트 업적을 완료해 가래떡을 만들 경우 '정제된 승급석'을 제공하며, '카이저'에서는 30일까지 새해맞이 이벤트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넷마블 또한 자사 대표 인기 모바일 게임 8종에서 혜택을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를 연다.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에 설 연휴 기간 동안 접속하면 선물과

설날 복주머니를 제공한다.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은 29일까지 풍등을 날려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모바일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는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주사위 보드 게임을 실시한다. 모바일 RPG '세븐나이츠'에는 출석만 해도 세븐나이츠 선택권, 천상의 돌, 스페셜 만능 조각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대표 명절게임 '모두의마블'도 설을 맞아 마블킹덤 신규 맵을 출시했다.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도 자사 게임 8종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했다. 우선 '서머너즈 워'에서는 내달 10일까지 '설날맞이 파티미션 이벤트'를 실시한다. 프로야구 기반의 '컴투스 프로야구2020'과 '컴투스 프로야구 포매니저'에서는 설날맞이 특별 접속 이벤트를 연다.

조이시티의 모바일 보드 게임 '주사위의 신'은 24일부터 27일까지 출석 이벤트를 통해 복주머니를 매일 1회씩 획득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교통사고, 설 연휴 전날 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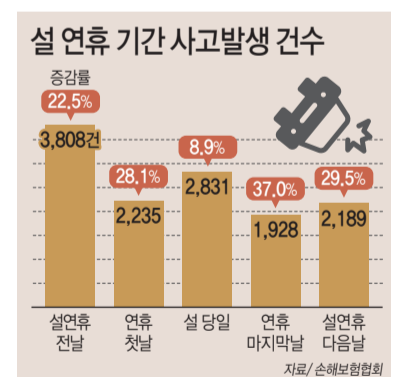
연휴 전날 사고건수 22.5% ↑ 설 당일 부상자 가장 많이 발생

귀성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설 당일에는 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22일 발표한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전날 평균 사고건수는 3808건이 발생해 평상시보다 22.5%가 증가했다. 부상자는 설 당일에 가장 많은 7184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평소보다 약 53.2% 높은 수준이다. 설 당일, 성묘 등 가족 행사 참석을 위해 차량에 동반탑승자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부상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 연휴 전날에도 평상시 일평균 4690명보다 25.1% 많은 5867명이 부상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평상시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기간에 10세 미만 어린이와 19세 이하 청소년 피해자는 각각 평소보다



59.6%, 80.6% 높은 사고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60세 이상 연령대는 평상시보다 감소했다. 운전시간대로 살펴보면 설 연휴 기간은 평소와 다른 시간대 운행이 증가해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부상자가 45.9% 늘었다. 사망사고의 경우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평균 0.6명으로 평소 0.2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피해자가 각각 26.3%, 24.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험회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 각별히 교통법규 준수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